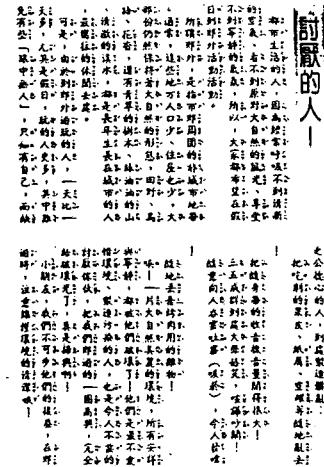


# 만화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킨다

대만은 자국의 「環境保全」에 대한 정책을 「行政院環境保護署」(우리나라의 환경청에 해당)가 담당하고 있다.

다음의 「環保漫畫手冊」은 同國의 環境保護署가 발행한 것을 게재한다. 〈편집자註〉



## 〈물상식한 밑살스러운 인간〉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맡을 수가 없고, 산과 들의 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맛볼 수 없고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향유하며 살 수 없읍니다.

그래서 모두들 휴일에는 교외에서 활동하기 원합니다.

소위 교외라는 곳은 市를 둘러싼 市구역 바깥을 가리킵니다. 통상 이러한 곳의 인구는 적고 주택도 적어서 대부분이 여전히 대자연의 형태, 즉 산과 밭, 새들의 지저귐 꽃내음 등을 보존하고 또한 녹색의 수목과 푸르른 산, 청정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이들은 모두 오랜 기간 동안 도시에서 산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쉬고 싶어하는 휴식공간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교외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고 더욱기 휴일은 놀러나온 사람들 이 더욱 많은 까닭에 그중에는 남의 눈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잊은채 공중도덕을 지키

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곳곳이 소란스럽고 지저분하게 되고 있읍니다.

먹다남긴 과일껍질, 휴지조각, 빈깡통등이 어렵게 버려져 있습니다!

기분내기는 대로 가져와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가 지나치게 큽니다!

서너·네댓명이 집단을 이루어 곳곳에서 큰소리치고 회회락락하며 소란스럽게 떠듭니다!

제멋대로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침을 하게 합니다!

아무데나 불고기용 잡다한 것들을 버립니다!

아! 모든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는 대 자연의 아름다운 환경이 파괴되고 있읍니다!

그들은 환경을 가장 아끼지 않고 오염시키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럼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패거리들로 우리들이 교외에서 노는 일단의 즐거움을 완전히 파괴하며 홍을 깨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뒤를 밟아서는 안됩니다.

교외에 나갈때는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주의합시다.

# 대자연의 파괴자

